



## 제7회 교과용도서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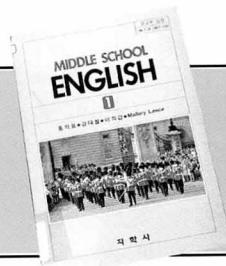
### 국내 초·중등학교 교과서 발전사 총망라

‘제7회 국내외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전시회’가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위치한 남산도서관에서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열렸다.

### 27개국 4천5백여권의 교과서 한 곳에 모아

이번에 전시된 교과용도서는 우리나라 1740권과 미국 등 26개국의 2746권으로 모두 27개국 4486권의 교과서가 전시됐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다양한 외국교과서의 모습과 현재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제7차 교과용도서 외에 제1차 교육과정기부터 교과용도서를 시간순으로 특별전시, 교과용도서의 변천과정과 그 발전상을 함께 볼 수 있는 색다른 기회가 마련됐다.

# 교과용도서 전시회 즐지어



남산도서관 1층 전시실에서 개최된 이번 전시회는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사장 곽현수)이 주관한 것으로 우리나라와 외국의 교과용도서에 대한 비교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교과용도서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행사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정책 연구 과제 62건(8억 3천만원)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로 현재 국내의 교과서 및 관련자료 수집 등을 통해 교과서정보관에 현재 3만3천여권의 자료를 비치하고 있다.

### 제1차 교육과정 통해 교과서 개발의 체계적 기틀 마련

1954년 4월부터 1963년 2월에 이르기까지의 제1차 교육과정기는 대한민국 최초의 교육과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1954년 4월 20일 각급 학교(초·중·고)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이 제정되었고, 각 학교의 교과 및 기타 교육활동의 편제를 의미하는 ‘교과과정’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이 시기의 교과서 편집기법은 초기 단계로 군정기·교수요목기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고 서체 또한 변화가 없어



단조로웠다. 사진이나 삽화도 질이 나빠 인쇄 효과가 떨어졌다. 그러나 제1차 교육과정에 맞게 개발된 국·검정 교과서는 이후 교과서의 모델이 되었고, 일관 편찬, 일괄 검인정 업무체계가 이루어져 교과서 개발을 체계화·종합화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제2차 교육과정기(1963.2~1973.2)에는 교육과정에 준거하고 국민교육 현장 정신을 부각시킨 생활중심의 교과서 발행이 두드러졌다. 이 시기는 체제상의 큰 변화는 없지만 교과서의 질적 제고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진

1977년 3월에 일어난 이 '검인정 교과서 사건'으로 인해 관련 문교부 관리와 출판업자는 구속되었고, 관련기업은 거액의 탈세액을 추징당했다. 교과서 출판업자는 대부분 파산하고 검인정교과서의 생산·공급 업무는 국정교과서(주)로 넘겨졌다. 이 사건은 기존 교과서 체도를 파기시켰고, 새 규정에 의한 교과서의 저작·검정·발행·공급의 새 체도를 탄생시킨 계기가 됐다.

제4차 교육과정(1981.12~1987.3)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자율학습의 강화'와 교과서 형태를 규정짓는 '교과

가을을 맞아 사람들의 발길을 기다리는 각종 공연 및 전시회 소식이 활기차다. 그런 가운데 최근 교과서를 주제로한 이색 전시회가 잇따라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과용도서 전시회'와 '따따따 따따따 주먹손으로 교과서 삽화전'이 바로 그것이다.

시기로 간주된다. 초등학교 실험용 교과서를 제작, 학교현장에서 실험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 국민용 교과서를 편찬하고 20중에 이르던 한문교과서가 단일본으로 개편되기도 했다.

#### 새로운 교과서 검정·발행 제도의 탄생

제3차 교육과정(1973.2~1981.12)에 들어서서 관련업계를 뒤흔들만한 큰 사건 하나가 터졌다. 검인정교과서 공급을 둘러싼 대규모 부정과 비리가 적발된 것이다.

서 단위전개 과정'의 도입으로 교과서 구조 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교과서의 외적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기준 쪽수 허용 범위가 5%에서 10%로 증가했고, 지질은 미색쟁지 55g/m<sup>2</sup>에서 교과서 중질시 70g/m<sup>2</sup>로 상향 조정되는 등 색도, 지질, 장정 등이 크게 향상되었다. 초등학교(현 초등학교)의 교과서 판형의 경우 4×6배판으로 바뀌어 국판 체제에서 벗어났으며 1985년 이후부터는 특수학교의 각종 교과서 개발도 추진되었다.



1. 특수학교용 교과서 2. 우즈베키스탄의 교과서 3. 싱가포르의 교과서



남산도서관 운영위원장인 교수권 전광인쇄정보 대표이사가 기증한 개관 80주년 기념비

### 경쟁에 의한 질적 개선 도모

획일화 된 교과용도서의 편찬 정책이 개방형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제5차 교육과정기(1987.3~1992.6)에 들어서서는 경쟁에 의한 교과서의 질적 개선과 다양화를 도모하기 시작했다. 먼저 다양한 교육과정 자료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 ‘1교과 다 교과서제’를 도입(국어의 경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했으며 2종교과서는 교과목수를 확대하는 한편 자율학습을 도입하고 외형적 체제 및 내용 편집 등이 강조됐다. 이 시기의 교과서 외적 체제는 제4차 교육과정기 때와 같이 포맷이나 편집 디자인 등의 기법이 도서 편찬에 적용되지는 않았다.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가 검정으로 개발된 제6차 교육과정기(1992.6~1997.12)에는 ‘교과용 도서의 체제 기준’과 ‘부교재의 가격 사정 기준’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폐지됐다. 또한 검정기준이 공개 논의 후 개방되었고 ‘집필상의 유의점’의 제시 내용이 정선했기에 따라 단순화 되었다.

### 제7차 교육과정, 가독성과 학습효과 최대한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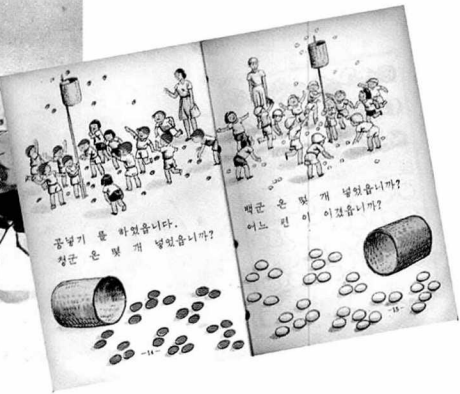
제7차 교육과정기를 맞고 있는 현재, 교과용도서는 종전에 비해 내용과 조직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 친근감과 창의력을 높이는 만화 및 삽화가 게재되기 시작했으며 학생 개인차를 존중한 수준별 선택 학습도 이뤄지게 되었다. 실생활 사례를 학습 소재로 도입하기도 했다. 외적 체제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판형·쪽수는 모든 교과서가 4×6배판으로 바뀌고 기준 쪽수의 20% 가감이 가능해 졌다.

편집디자인 측면에서도 디자인 설계 및 레이아웃, 활자그래픽, 사진·그림 등의 사용을 통해 조형 및 가독성을 높이는 등 학습효과를 최대한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지게 되었다. 한편 이번 제7회 전시회는 지난 10월 1일에 끝났지만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부설 교과서정보관(www.ktrf.re.kr)에서 교과용도서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동동동동 동대문,  
 동대문을 만들자.  
 남남남남 남대문,  
 남대문을 만들자.  
 서로서로 세우자,  
 높이높이 세우자.

동동동동 동대문,  
 동대문을 열어라.  
 남남남남 남대문,  
 남대문을 열어라.  
 차례차례 나가자,  
 사이좋게 나가자.

1976년 초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큰사진)와 1963년 초등학교 1차 산수 교과서(작은사진)



## ‘따따따 따따따 주먹손으로’ 교과서 삽화전

### 테마별로 구분한 교과서 교육 삽화 전시

대한교과서(주) 교과서박물관에서는 개관3주년 기념 특별전시로 지난 10월 9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따따따 따따따 주먹손으로’ 교과서 삽화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특별 전시는 1차부터 4차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1950~70년대에 발행한 초등학교 국어, 도덕(바른생활), 산수, 사회(사회생활), 자연 교과서의 삽화 중에서 사계절, 교훈, 예절, 동요 등 교육 이미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만을 선별해서 테마별로 나누었다. 사진이나 그림은 어떤 주제를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디자인 요소라는 점에서 이번 전시회는 특별한 관심을 불러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교과서 인쇄에 사용된 인쇄기계 특별 전시

이번 전시회는 평소 교과서 본문의 내용만 주의 깊게 보아 온 우리들에게 삽화라는 이미지로 교육테마를 어떻게 표현하고 고찰해 볼 수 있는가를 전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전시회가 열리는 대한교과서 교과서박물관은 10년 이

상 준비 기간을 거쳐 2003년 9월 24일 개관된 곳으로 교과서를 비롯해 무려 16만점에 달하는 교육 자료를 소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교과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행사의 주요 전시 내용은 교육과정 변천사, 교과서 제작과정, 세계의 교과서, 북한 교과서 등이며, 인쇄기계 전시실이 있어 1940년대부터 실제로 교과서 인쇄에 사용했던 기계들을 볼 수 있다.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개방되며 20인 이상 단체관람 예약을 할 경우 박물관 관람 후 인쇄 공장도 견학할 수 있다.

▲ 일시 2006년 10월 9일~12월 31일

▲ 장소 대한교과서(주) 조치원 공장 교과서박물관 기획전시관

▲ 이용시간 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 월요일 휴무

▲ 세부 전시 내용

- 사계절 이야기(봄, 여름, 가을, 겨울)

- 추억의 시화·삽화(별, 달, 이슬비, 발자국, 눈사람 등)

- 전통놀이문화, 수학이야기, 학교생활, 몸을 깨끗이, 자연공부

- 차교육과정 교과서(국어, 산수, 자연, 사회, 음악) 표지 및 목차, 각 단원명

- 1차, 2차 교육과정 국어교과서 단원 비교

▲ 문의 교과서박물관(www.textbookmuseum.co.kr)

김치원 기자 kcw@print.or.kr